

<2021 경찰1차 가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①	③	③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②	④	①	③	①	④	④

1.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은 고구려와 관련된 사회 모습이다. 서옥제의 사회 풍속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③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진한과 변한에서는 장사 지낼 때 큰 새의 깃을 함께 묻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기원하였다.
- ③ 백제는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다.
- ④ 동예는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2.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신라 임신서기석의 내용이다.

[정답 해설]

① 신라는 진흥왕 때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545).

[오답 피하기]

- ② 태학은 소수림왕 때 설립된 고구려의 교육 기관이다(372).
- ③ 백제는 성왕 때 방군제를 실시하여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 ④ 백제는 무령왕 때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3.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897년 당에 간 발해의 대봉예가 통일 신라의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건(쟁장 사건)으로, ㉠은 발해, ㉡은 통일 신라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② 발해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경주)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발해는 3성 6부의 중앙 관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사심관 제도는 고려에서 실시한 제도이다.
- ③ 9주 5소경은 통일 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이며, 빈공과는 당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이다.
- ④ 9서당과 10정은 통일 신라의 군사 조직이며,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 기관이다.

4. 정답 ①

[정답 해설]

② 대공의 난은 768년 혜공왕 때 발생하였다(『삼국유사』에는 767년, 『삼국사기』에는 768년으로 기록). 혜공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인 태후의 섭정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로 인해 왕권이 불안정하고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수많은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 ① 김헌창의 난은 822년(헌덕왕 14) 3월에 신라 옹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이다. 김헌창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였다.
- ④ 장보고의 난은 846년의 사건이다. 귀족들이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의 반목이 심해졌는데 이에 정부에서 엄장을 보내 그를 암살하였다.
- ③ 원종·애노의 난은 889년(진성여왕 3) 신라의 사벌주(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에서 원종·애노가 일으킨 농민 봉기이다.

5. 정답 ③

[자료 분석]

밑줄 친 '왕'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려 태조이다. 발해 세자 대광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③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으로 서경으로 중시했으며,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오답 피하기]

① 왕규의 난은 왕규가 왕위쟁탈을 위해 일으킨 난으로, 고려

해중 때(945, 해중 2) 일어났다.

- ② 광군은 947년(정종 2)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된 특수군단이다.
- ④ 귀법사는 고려 광종 대에 창건되었다.

6. 정답 ③

[자료 분석]

보기 중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광덕, 준풍, 천수이다.

[정답 해설]

천수는 고려 태조 때 사용한 연호이며, 광덕, 준풍은 고려 광종 때 사용한 연호이다.

[오답 피하기]

대흥은 발해 문왕, 수덕만세는 후고구려(태봉 시기) 궁예, 건원은 신라 법흥왕, 인안은 발해 무왕 때 사용한 연호이다.

7. 정답 ②

[자료 분석]

㉠에 해당하는 인물은 경대승이다.

[정답 해설]

② 경대승은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병 집단인 도방을 조직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최우는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③ 최충헌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그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이 되어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다.
- ④ 봉사 10조는 1196년 최충헌이 명종에게 올린 10개조의 글로, 폐정의 시정과 왕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8. 정답 ④

[정답 해설]

- ㉠ 몽골의 1차 침입(1231, 고종) 당시 박서가 귀주성에서 활약하였다.
- ㉡ 최우는 몽골에 대항하여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 ㉢ 몽골의 2차 침입 때(1232)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자 몽골군이 퇴각하였다.
- ㉣ 대장도감은 1236년 강화도에 설치되었다.

9. 정답 ②

[자료 분석]

보기 중 옳은 지문은 1번째와 2번째 지문이다.

[정답 해설]

- 수군, 조례 등은 신량역천(칠반천역)으로, 상민(양인) 신분이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천역(賤役)에 종사했다.
- 공노비의 경우 상의원·사복시·군기시 등의 관서에서 요리사, 마느질, 말 기르기, 무기 제작, 건물 수리 등을 맡는 유외잡직(流外雜職)이라 불리는 하급기술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오답 피하기]

- 과거 외에도 음서나 천거(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 등을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 서얼 차대법은 태종 때 제정되었다.

10. 정답 ④

[정답 해설]

- ㉠ 한산도 대첩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전투는 1592년 7월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왜의 수군을 격파한 전투이다.
- ㉡ 1592년 10월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왜군을 맞아 진주성에서 진주목사 김시민을 중심으로 한 관군이 싸워 승리하였으나 김시민은 전사하였다.
- ㉢ 1593년 1월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한 조·명 연합군이 왜장인 고니시 유키나와가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 1593년 2월의 사건이다.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남진하다가 벽제관에서 패퇴하고 명군이 평양성까지 후퇴한 상황에서 권율의 부대는 해주산성에서 왜군에 포위되었다. 그러나 권율을 중심으로 한 관군과 백성들은 9차례에 걸친 왜군의 공격을 모두 물리쳤다.

11. 정답 ③

[자료 분석]

(가)는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의 북벌론, (나)는 조선 후기 북학과 실학자 박제가의 북학론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① 서인의 북벌론은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 기초한 것으로, 조선=소중화(小中華)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이었다. 17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로 인정되던 명나라의 멸망으로 중화의 명맥이 소중화인 조선으로 넘어와 계승되는 것으로

로 생각했다. 따라서 멸망한 왕조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일과 조선의 정체성을 중화의 계승자로 파악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었다. 창덕궁 내에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한 것이나 송시열이 만동묘(萬東廟)를 설치한 것 등은 이러한 의식의 소산이었다.

②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효종(1649~ 1659)은 서인인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등 북벌을 준비했다. 북벌론은 병자호란의 책임을 져야 했던 서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④ 북학파는 청나라에도 중화(中華)의 문물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발전상을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방안을 찾자는 입장이었다.

[오답 피하기]

③ 북학론은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입장이고 화이론은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주장이다. 북벌론은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 기초한 것이었다.

12. 정답 ③

[정답 해설]

㉠ 문종 때에는 편년체의 『고려사절요』 (1452)가 편찬되었다.

㉡ 성종 때에는 강력한 억불책을 실시하여 도첩제마저도 폐지하고 출가를 금지하였다.

[오답 피하기]

㉠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중종 때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은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고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13. 정답 ②

[자료 분석]

자료는 박제가의 ‘우물론’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북학의』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해설]

②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열하일기』를 저술한 인물은 박지원이다.

③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한 인물은 한백겸, 이원익, 조익, 김육, 허적 등이다.

④ 한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이익과 박지원이다. 이익의 한전론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에 대해서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지는 것이었고,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14. 정답 ②

[자료 분석]

(가)는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임오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1882)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한성 조약(1884)의 내용이다. 일본은 자신들도 정변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국서로서 사죄를 표명할 것과 일본 공사관 신축비와 배상금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였다.

[정답 해설]

②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은 마젠창과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 및 외교에 간섭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통리기무아문은 임오군란 때 대원군이 일시 재집권하면서 폐지되었다.

③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885년의 일이다.

④ 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 선언을 권고한 것은 1885년의 일이다.

15. 정답 ④

[자료 분석]

자료는 중추원 관제에 대한 사료이다. 독립 협회는 정부(대한제국)와 협상을 벌이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였다(1898. 11.). 중추원은 황제가 임명한 25인과 독립 협회가 선출한 25인으로 구성되며, 법률과 칙령, 의정부 의결, 국민의 건의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정답 해설]

④ 대한제국은 1902년 수민원을 설치하여 외국여행권,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제1차 갑오개혁 때 경무청이라는 경찰기구를 설치하였다.
- ②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사실이다.
- ③ 지방 재판소와 고등 재판소를 개설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사실이다.

16. 정답 ①

[자료 분석]

(가)는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이고 (나)는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 신흥약(정미 7조약)의 내용이다.

[정답 해설]

- ㉠ 일본은 제1차 한·일 협약 체결로 파견된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였다.
- ㉡ 한·일 신흥약을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비밀 각서(부수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오답 피하기]

- ㉢ 1903년 러시아는 한국의 용암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 ㉣ 1907년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17.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에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했다는 사실 등을 통해 1922년에 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임을 알 수 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은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따라서 1922~1938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③ 일제는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을 세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고등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인의 고등 교육에 대한 열기와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사립학교령이 공포된 시기는 1908년의 일이다.
- ② 조선어가 선택 과목(수의 과목)이 된 것은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에서이다.
- ④ 일제는 1941년에 소학교를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18. 정답 ①

[자료 분석]

자료는 1940년에 발표된 한국광복군 선언에 대한 내용으로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①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은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 선 혁명당을 해체한 후 통합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였다(1940. 5.). 한국 독립당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며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한국 광복군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가 합류한 것은 1942년의 일이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선포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 ④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4년 5차 개헌에서 주석·부주석제를 채택하였다(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19. 정답 ④

[자료 분석]

밑줄 친 ‘그’는 안재홍이다. 『조산성고사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등의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 1945년 8월에 결성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위원장에 여운형(중도 좌파), 부위원장을 안재홍(중도 우파)으로 하는 좌우 합작으로 결성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송진우, 김성수 등 일부 우익 인사들은 1945년 9월 한국 민주당(한민당)을 창당하였다.
- ②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된 인물은 김규식이다.
- ③ 1945년 10월에 결성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회장으로 추대된 인물은 이승만이다.

## 20. 정답 ④

[자료 분석]

자료는 장면 내각의 시정 방침의 일부 내용이다. 부정 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④ 장면 내각은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경제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경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화폐 개혁이 단행된 것은 5·16 군사 정변(1961)으로 장면 내각이 9개월 만에 붕괴되고 난 후인 박정희 군정 시기의 일이다.
- ② 잡지 『사상계』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3년 장준하를 발행인으로 창간되었던 월간 종합 잡지이다.
- ③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11월의 일이다.